

與 '고건 대안' 누군가

“기존 주자를” “밖에서 찾자” 팽팽

열린우리당이 고건 전 국무총리의 대선불출... 대선 이후 고민에 빠졌다. 범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고건 전 총리의 빈자리를 채워놓아야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방지할 수 있지만, 대안이 될만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의장, 천정배 의원 등 우리당 소속의 기존 주자들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건 총리를 지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력에 검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당 후보로 나설 경우 당장 지지율이 20% 포인트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실용성향인 양행일 의도 "손 전 지사의 행보나 이념, 정책적 노선이 한나라당의 주류적 분위기와 다르다"며 "환경과 풍토만 바꾸면 잘

“신선하고 흥행성 있다”

성장할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손 전 지사 영입주장에 대한 당내 거부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노선에 동의할 경우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한나라당의 평당원도 아닌 유력주자를 우리 세력의 대권주자로 옹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에 "예전에 우리당 일부에서 손 전 지사 영입을 목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를 확인했지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 등 기존의 여권인사를 포함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박원순 변호사,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정치권 바깥 인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고건 전 총리가 빠진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정 전 총장이나 박 변호사 등 신선하고 흥행성 있는 외부인물을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바깥에서 대권후보를 영입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당내 비판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신당과 재선의원은 "총청권에 연고가 있고, 서울대 총장까지 역임한 정 전 총장의 지지율도 1% 안팎인 상황인데 시민운동가나 기업체 사장

‘손학규 대안’ 놓고 이견도

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느냐"며 "인지도는 올리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을 겪었던 고건 전 총리가 중도포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라는 것이 보기 보다 만만치 않다"며 "집권여당이 정치 아마추어인 학자와 시민운동가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고건 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4년 연임 가능

꺾일시 새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

청와대 발의 ‘원포인트 개헌안’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중순 발의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중앙인론조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에 발의할 때 세 가지를 정리해 넘기게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4년 연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 대통령 꺾일시 새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것이 그 골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현행 헌법 70조와 대통령 선거에 관한 68조를 손질하는 선에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임기 조항인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뀔 전망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의 경우 2008년 20년 만에 양자의 임기가 일치,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헌법 조문 개정 또는 조항 추가가 필요 없다. 문제는 차기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임기 개시에 3개월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3개월의 임기 차를 그대로 둔 채 개헌안을 발의해 정치권의 논의에 맡기거나, 아니면 대

선과 총선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기하고 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헌안을 발의하면 임기 일치 문제를 부칙에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 후 4년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대통령의 유고 등 꺾일시 새 대통령 선거 및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관심이다.

현행 헌법 68조는 1항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에서 ‘대통령이 꺾일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의원들 ‘FTA 농성’ 지지 방문 열린우리당 임종인, 정청래 의원 등이 18일 신라호텔 앞에서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단식 농성을 나흘째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지지 방문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동연의원 탈당 언제?

與 전대 합의 거취 관심증폭 18일 방송·결행 늦어질 듯



당의 명분이 약화,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어 염 의원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8일 통합신당 추진에 합의하고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염동연 의원(광주 서갑·사진)의 거취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염 의원은 그동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오는 20일 이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당대회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염 의원의 탈당 시기가 늦춰지거나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반 탈당이 예상되던 일부 강경 신당파 의원들도 전대준비위의 전대개최 합의에 따라 탈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염 의원은 이날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의유를 떠났으며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는 탈당 결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염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염 의원이 ‘전대 개최는 당의 발전적 해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전대준비위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탈당은 이뤄질 것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노대통령 머리에 지역 우월주의 가득”

유종필, 대통령과 만남·결별 책에 담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사진)이 18일 2002년 대선 이후 자신의 정치 역정을 기록한 ‘유종필의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바 있는 유대변인은 이 책에서 ‘노 대통령과의 운명적 만남과 결별, 숙명적 대결의 과정을 담고 눈길을 끌었다.

유대변인은 저서에서 “당시 ‘동서 화합과 국민통합’의 기치에 따라 노무현 캠프에 참여했지만, 현재 노대통령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뿌리깊은 지역 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영남 출신 노 대통령의 ‘호남당’ 운운에는 호남 비하 의식이 짙게 배어있다”며 “유종필이 ‘친노’에서 ‘반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반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때 노 대통령으로부터 ‘보



석과 같은 존재’라는 분에 넘친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서게 되다니 이는 운명적인 만남이자 숙명의 대결”이라며 “운명이 엇갈리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박지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노 후보의 뜻과 의지를 김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고, 박지현 실장을 만나고 나면 이번 그 결과를 노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하지만 노무현은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와 동서화합, 국민통합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대통령 ‘靑 브리핑 회의’ 직접 주재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매일 ‘청와대 브리핑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올 초부터 매일 오전 일일상황 점검회의 직후 관저로 일부 참모들을 불러 30~40분 동안 회의를 열어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될 글들의 방향과 취지 등을 직

접 설명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관련 참모들로부터 현안과 함께 그 날의 청와대 브리핑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현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일이 지시하고 있다.

회의에는 윤승용 홍보부처를 비롯한 홍보부처실 비서관들이 고정적으로 참석하며 현안에 따라 다른 수석

실 참모들도 참석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부터 참모들에게 지시를 해 준비를 시켰으며, 청와대는 주체별로 순차적으로 ‘개혁 시리츠’ 형식으로 청와대 브리핑에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임기 말에 국민 메시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기에는 평소 참여정부의 성과가 언론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언론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육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전국수석 배출 2월 1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사도청 앞 정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비아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국가직 행정직 세무직 교정직

중개사 전문강의 17년!! 공인중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정예반 서울에서 초빙 일류교수진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김재규 경찰학원 KPA 회원 2006년 1차 최종합격 총 156명 2006년 2차 최종합격 총 142명

1월 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 / 1년 회원제 오직 야간이론+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든 6강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올찍수주야간반수시수중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000여명 모집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2008년 1월 시험대비 1학년 대비반 개강 개강: 1월 8일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1월 11일(목)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중부경찰서 227-8088